

시간절약 챌린지!

2일차(언어와 매체)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하는데, 부정문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있다. ‘안’ 부정문은 주어의 의지에 의한 의지 부정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을 나타내고, ‘못’ 부정문은 주어의 능력 또는 상황에 의한 부정을 나타낸다. ‘안’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안(아니)’이나 용언 ‘아니다’, 보조 용언 ‘아니하다(않다)’를, ‘못’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 ‘못’이나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한다. 그리고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에는 보조 동사 ‘말다’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안’ 부정문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서술어가 ‘체언+이다’로 된 경우에는 체언에 보격 조사 ‘이/가’를 붙여 ‘체언+이/가 아니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서술어가 용언인 경우에는 서술어 앞에 ‘안’을 놓거나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지’를 붙여 ‘-지 아니하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전자를 ‘짧은 부정문’, 후자를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짧은 부정문은 용언에 따라 부정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ㄱ. *밥이 안 설이다. / ㄴ. *내가 너를 안 앞서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은 ㄱ, ㄴ과 같이 서술어로 쓰인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인 경우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사동사, 피동사, 접미사 ‘-하다’로 파생된 일부 용언이나 ‘돌아가다, 들어가다’와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한 합성 동사는 어떤 제약도 없이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의 ‘안’ 부정문은 현대 국어와 달리 수식언인 관형사와 부사의 앞에 ‘아니’가 위치하는 부정도 나타났다. 서술어가 용언인 경우에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모두 사용되었는데, 짧은 부정문은 서술어 앞에 ‘아니’를 사용하고, 긴 부정문은 보조적 연결 어미 ‘-디’를 사용하여 ‘-디 아니하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동사의 어근이 명사나 한자어일 경우에는 어근과 접미사 ‘-하다’ 사이에 ‘아니’를 넣어 짧은 부정문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짧은 부정문인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뜯기다’가 합성 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② 짧은 부정문인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서술어인 ‘값싸다’가 합성어이기 때문이겠군.
- ③ 짧은 부정문인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늦추다’가 사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④ 짧은 부정문인 ‘보따리가 한 손으로 안 들리다.’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서술어인 ‘들리다’가 피동사이기 때문이겠군.
- ⑤ 짧은 부정문인 ‘할아버지 택 마당이 안 드넓다.’가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는 서술어인 ‘드넓다’가 파생어이기 때문이겠군.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敢히 노티 아니하더라 [감히 놓지 아니하더라]
- ㉡ 비록 아니 여러 나라라도 [비록 여러 날이 아니더라도]
- ㉢ 妙法이 둘 아니며 세 아닐적
[묘법이 둘 아니며 셋이 아니므로]
- ㉣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변방 밖의 북쪽 오랑캐인들 아니 오겠습니까]
- ㉤ 나도 現在 未來 一切 衆生을 시름 아니 호리라
[나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 대해 시름 아니 하리라]

- ①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용언과 체언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와 ㉤을 보니, ‘안’ 부정문이 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과 ㉤을 보니, ‘안’ 부정문이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다음은 국어의 음운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종성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 ㉡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종성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외의 자음이 종성에 놓일 때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중 하나로 발음한다.
-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 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자료] 겉옷[거둔], 국밥만[국빡만], 백분율[백뽀율]
색연필[생년필], 헛일[현닐]

- ① ㉠: 국밥만, 색연필, 헛일 ② ㉡: 국밥만, 백분율
- ③ ㉢: 겉옷, 헛일 ④ ㉣: 겉옷, 백분율
- ⑤ ㉤: 백분율, 색연필, 헛일

시간절약 챌린지! 2일차(화법과 작문)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최근에 약속 장소를 정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갈 때 지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여러분이 보았던 지도처럼 우리가 평소 접하는 일반적인 지도는 사실적인 지리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옛 지도 중에는 정확한 사실 정보보다 제작자의 주관적 인식을 더 중요하게 나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천하도’가 그런 지도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천하도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하도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널리 유행한 조선 시대의 세계 지도입니다. (㉠ 자료 제시) 천하도의 다양한 판본 중 하나인 이 지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전체 형태를 보시면 세계를 원 형태로 나타내고 중앙의 안쪽 대륙, 이 대륙을 둘러싼 바다, 바다 밖의 대륙으로 구성된 점 등이 천하도의 전형적인 양식에 해당합니다. (㉡ 자료 제시) 위의 그림은 지도의 중앙 부분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나라를 가리키며) 안쪽 대륙에는 실제 나라인 중국, 조선국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대륙 일부분을 확대한 아래 그림을 볼까요? 여기 ‘불사국’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라는 뜻으로 실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바다와 바깥 대륙에는 대인국, 머리가 세 개인 사람들이 사는 삼수국 등 상상의 나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 자료 제시) 또 가장자리 일부를 확대한 그림을 보시면 선으로 연결된 동그라미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28수의 별자리를 그린 것으로 천문학에 대한 제작자의 관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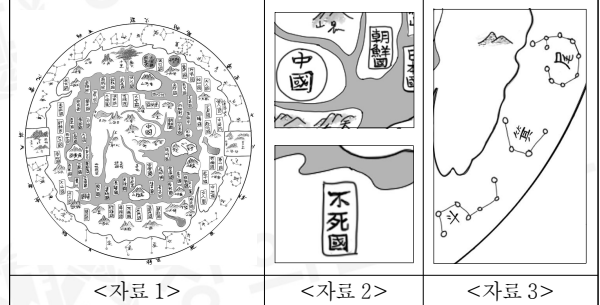
천하도는 판본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로 안쪽 대륙에 실제 나라, 바다와 바깥 대륙에 상상의 나라를 원형의 세계로 그린 점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런 독특한 형태의 세계 지도는 조선에만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하도가 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서양 세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접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동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에 두고 그 바깥에 실제 서양 세계 대신 가상의 나라를 그림으로써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그 결과 천하도와 같은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천하도 외에도 흥미로운 옛 지도들이 많습니다. 옛 지도에 담긴 과거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④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리함으로써 청중에게 발표의 중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자료 1>을 활용하여 ‘천하도’의 전체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에 <자료 1>을 활용하여 ‘천하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에 <자료 2>를 활용하여 실제 나라와 상상의 나라를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④ ㉡에 <자료 2>를 활용하여 지도 제작자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에 <자료 3>을 활용하여 천문학에 대한 제작자의 관심이 지도에 반영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3.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지도는 사실적 정보만을 담아 제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작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지도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다.

학생 2: 옛 지도는 대동여지도밖에 몰랐는데, 당대 사람들의 상상력이 담긴 세계 지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어 유익했어. 발표자가 알려준 누리집에 방문해서 다른 지도들도 더 찾아봐야겠어.

학생 3: 오늘 발표에서 천하도가 판본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판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발표 중 다루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간절약 챌린지!

2일차(공통과목)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자는 글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기도 하지만 생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독해 과정에서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생략된 내용이나 주제, 필자의 의도까지도 추론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읽는 과정을 추론적 읽기라고 한다.

[A]

먼저, 독해 과정에서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글에 사용된 단어나 문장, 담화 표지 등에서 단서를 찾거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 이때는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읽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독자가 글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과정에서 ㉠ 독자는 글에서 생략된 내용이나 필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글에 제시된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서로 비교해 가며 추론적 읽기를 하게 된다. 실제 독해 과정에서 독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며 추론적 읽기를 한다.

추론적 읽기 과정에는 글의 응집성,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과 같은 요소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먼저, 문장들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글은 독자가 문장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읽어야 하므로, 문장 간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글을 읽을 때보다 독해 과정에서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다. 또한 독자의 읽기 능력에 비해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정보들이 오히려 독자의 추론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다른 부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많은 정보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선택한 정보의 중요성을 점검해 가며 정확한 추론을 할 필요가 있다.

1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은 필자가 기술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 ② 독자는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제시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글은 독자의 추론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④ 추론적 읽기 과정에서 글에 제시된 정보의 양은 글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 ⑤ 독자는 글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거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할 수 있다.

13 다음은 학생이 독서 후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A]를 바탕으로 ㉠~㉣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중세 유럽의 역사』라는 책을 골라 ㉠ 글에 드러난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읽었다. 중세에는 교황의 권위가 높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 중세가 신 중심의 사회였다는 문장을 통해 그 이유를 쉽게 추론할 수 있었다. 중세 유럽인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지 못했다는 부분은 ㉢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놀라웠다. ㉣ 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세 시대의 의료 수준을 다루었던 신문 기사의 내용을 떠올려 보니 지금보다 당시의 위생 조건과 의료 수준이 나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 중세에도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는 ㉤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의 등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 ① ㉠ : 글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할 때 필요한 과정이다.
- ② ㉡ :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이다.
- ③ ㉢ : 글에 제시된 정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비교하는 과정이다.
- ④ ㉣ : 자신의 확장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이다.
- ⑤ ㉤ :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추론적 읽기를 한 결과이다.

14 <보기>를 읽고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추론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독자의 배경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라면, 이 지식을 활용하여 글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추론을 하기가 어렵다.

- ① 독자는 글이 쓰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론해야겠군.
- ②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점검하는 자세를 지녀야겠군.
- ③ 독자는 배경지식 수준에 따라 추론의 목적을 달리해야겠군.
- ④ 독자는 글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때 필자의 의도를 고려해야겠군.
- ⑤ 독자는 단어나 문장 등에서 단서를 찾아 문장 간의 관계를 재구성해야겠군.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짓달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
철없는 개나리는 **노란 얼굴** 내민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없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가날쁘다고 / 억누를 수 있느냐
어두운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
보이지 않는다고 / 업신여길 수 있느냐

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은

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

④ 조용히 아래로 깊어지며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를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⑥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

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있고 / 지하수가 수맥이 되어

남모르게 줄기 속을 흐르지 않으면

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

아카시아도 라일락도 /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

- 김광규,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

(나)

③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④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굵은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을 묘사하여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대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를 드러내어 젊은이들이 힘겨운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극단적 상황임을 강조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대인의 노력을 그려내고 있다.
- ④ ㉣: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 현대인을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굴에 빔대어 각자의 일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며 이상적 세계를 향해 가는 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에 있음을 보여 주며, 젊은이들도 나무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나)는 일상에 지쳐 살아가는 삶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현대인의 생명력의 근원이 인간 바깥의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기원한다는 사유를 드러낸다.

- ① (가)의 '노란 얼굴'은 겨울임에도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나)의 '무표정한 저 얼굴'은 화자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보이지 않는'은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나)의 '볼 수 없는'은 현대인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력이 사라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하늘'은 나무가 희망을 품고 향해 가는 곳임을, (나)의 '땅속'은 현대인이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곳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의 '밝고 넓게 퍼져 나가기'는 젊은이들이 나무처럼 꿈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의 '일으켜 세우는'은 현대인이 삶의 의지를 불려일으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의 '뿌리'는 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는 힘의 근원임을, (나)의 '불가마'는 현대인이 일상을 극복하는 힘의 근원임을 보여 주고 있다.

2일차 풀이[解]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정답

1	①	2	④	3	④	4	⑤	5	④
6	①	7	⑤	8	⑤	9	⑤	10	②
11	③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정답

1	①	2	④	3	④	4	③	5	⑤
6	②	7	⑤	8	④	9	④	10	⑤
11	⑤								

공통 과목 정답

		12	④	13	④	14	②	15	③
16	⑤	17	②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해설

1. '안' 부정문의 이해

-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의 '뜯기다'는 어근 '뜯-'과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야. 합성 동사는 아니지.
- ②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의 '값싸다'는 명사 '값'과 동사 '싸다'가 결합된 합성어라서, 이걸로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지 않아.
- ③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에서 '늦추다'는 어근 '늦-'과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야. 이걸로는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어도 자연스러워.
- ④ '보따리가 한손으로 안 들리다.'에서 '들리다'는 어근 '들-'과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라서, 짧은 '안' 부정문으로 써도 어색하지 않아.
- ⑤ '할아버지 덕 마당이 안 드넓다.'에서 '드넓다'는 접두사 '드-'와 형용사 '넓다'가 결합된 파생어인데, 이걸로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어색한 문장이 돼.

2. 중세 국어 자료 탐구

- ㉑에서는 부사 '아니'가 관형사 '여러'를 부정하고 있지만, ㉒에서는 용언 '호리라'를 부정하고 있어.
- ① ㉑의 보조 용언 '아니'는 용언 '노티'를, ㉒에서는 용언 '아니며', '아닐씩'가 체언 '둘', '세'를 부정해.
- ② ㉑에서는 보조 용언 '아니'가 평서문에서 부정을, ㉒에서는 부사 '아니'가 의문문에서 부정을 나타내고 있어.
- ③ ㉑에서는 '노티 아니'라는 긴 부정문이, ㉒에서는 '호리라' 앞에 '아니'를 놓은 짧은 부정문이 사용됐어.
- ⑤ ㉒에서는 '묘법'이 둘이나 셋이 아님을 부정하고 있고, ㉑에서는 시름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정이야.

3. 국어의 음운 변동

- '겉웃'은 '겉'의 'ㄷ'이 'ㄷ'으로 바뀌고, '웃'의 첫소리로 옮겨져 발음돼. 또 '웃'의 'ㅅ'이 'ㄷ'으로 변해 발음되니까 [거둬]로 소리 나.
- '국밥만'은 '밥'의 첫소리 'ㅂ'이 'ㄱ' 뒤에서 'ㅃ'로 발음되고, '밥'의 종성 'ㅂ'이 'ㄱ' 앞에서 'ㄷ'으로 바뀌어서 [국뽕만]이 돼.
- 파생어 '백분율'은 '분'의 'ㅂ'이 'ㄱ' 뒤에서 'ㅃ'로 바뀌고, '율' 앞의 자음 때문에 [늘]로 발음돼서 [백뽕]

늘]로 소리 나.

합성어 '색연필'은 '연' 앞 자음으로 인해 [년]으로 발음되며, '색'의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변해 [생년필]이 돼.

파생어 '헛일'은 '일' 앞의 자음 때문에 [닐]로 발음되고, '헛'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현닐]로 소리 나.

4. 형태에 관한 조항 - 제27항

'새-, 셋-, 사-, 셋-'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소리와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다르게 사용돼. '새-, 사-'는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으로 시작할 때 쓰고, '셋-, 셋-'은 울림소리인 'ㄴ, ㄹ'으로 시작할 때 써.

그리고 '새-, 셋-'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ㅏ, ㅗ'일 때 사용하고, '사-, 셋-'은 음성 모음인 'ㄱ, ㄷ'일 때 사용해.

5. 형태에 관한 조항 - 제35, 38항

한글 맞춤법 제38항에 따라 '보이어'는 '보-' 뒤에 '-이어'가 붙어서 '뵤어'나 '뵤여'로 줄여 쓸 수 있어.

① '쪼았다'는 '쪼-'에 '-았-'이 붙어서 '쪼았다'로 줄일 수 있지.

② '쇠었다'는 '쇠-'에 '-었-'이 붙어서 '췌다'로 줄여 쓸 수 있어.

③ '뵤어'는 '뵤-'에 '-어'가 붙어서 '뵤어'로 줄여지지.

⑤ '트이어'는 '트-' 뒤에 '-이어'가 붙어서 '뵤어'나 '트여'로 줄일 수 있어.

6. 정보 구성 언어

(가)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문자와 이미지를 사용해 복합 양식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나)는 라디오 대담으로 음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음악도 사용해 복합 양식적 특성을 나타내.

② (가)는 인터넷 백과사전이라 정보 제공 방식이 순차적이지 않고 비순차적인 검색을 허용해.

③ (나)는 대담 중에 실시간 교통 안내 방송을 삽입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④ (나)는 청취자의 질문을 문자나 방송국 앱을 통해 받아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⑤ (나)는 라디오 대담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는 데 사·공간적 제약이 있어.

7.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가)의 '라일락'님이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함.'에서 최종 편집된 기록을 제공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수용자들의 열람 여부는 알 수 없어.

① '목차'가 있어서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②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는 '외부 링크' 항목을 제공해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지.

③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집' 기능이 제공돼.

④ 작성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 자료' 항목에 출처를 밝히고 있어.

8.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나)의 전문가는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해 스마트 가로등이 공유기 역할을 하고, 동시에 소음과 공기 오염도를 분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① 진행자는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해 스마트 시티가 대담 주제를 밝혀.

② 전문가는 부사격 조사 '에'를 사용해 센서 신호를 받는 대상이 '수거 차량'임을 설명해.

③ 전문가는 피동사 '모이다'를 사용해 행위의 대상인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④ 전문가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해 이전에 언급한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키고 있어.

9.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맷글 3은 환경에 관심 있는 청취자들에게 유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특정 관심사를 지닌 청취자들에게 의

미 있는 정보임을 나타내. 그러나 맷글 2와 3 모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아.

- ① 맷글 1은 '보고서를 찾아보'었다는 점에서 추가 탐색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이걸 통해 스마트 시티 기술이 현재 많은 도시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지.
- ② 맷글 2는 클라우드 개념을 알고 싶었는데 대담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해당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요청하고 있어.
- ③ 맷글 3은 절약된 전력량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아쉽다고 말하고 있어.
- ④ 맷글 1과 2는 대담이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며 긍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10.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가)의 첫 번째 슬라이드 그래프는 10대에서 20대까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거북목 증후군 환자 비율이 높아지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줘.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대비되는 그림 자료로 보여주고 있어.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을 글과 동영상 자료로 제공해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지.

④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올바르게 앉은 자세', '휴식 시간', '스트레칭' 등의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에서 중요한 정보가 더 잘 드러나게 강조하고 있어.

⑤ 모든 슬라이드에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해서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쉽게 안내하고 있어.

11. 정보 전달과 설득

(나)에서 한비는 '거북목의 정도'를 3단계 척도로 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수정된 슬라이드에는 '예, 아니요'만 표시돼 있어.

① 유준이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 소재목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해, 슬라이드 제목을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및 예방법'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

② 유준이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해서 제시하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해, 수정된 슬라이드에는 증상이 도식화되어 있어.

④ 한비가 두 번째 슬라이드와 형식을 맞추기 위해 예방법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자고 제안한 걸 반영해, 수정된 슬라이드에 번호가 추가되었어.

⑤ 세현이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각 자료를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해, 수정된 슬라이드에 시각 자료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해설

1. 발표 표현 전략 파악

발표의 첫 문단에서 '지도를 보신 적 있나요?'라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청중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발표 주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어.

②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아.

③ 3문단에서 '친화도가 제각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하는데, 이런 청중의 흥미를 끌려는 목적이지만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은 아니야.

④ 발표와 관련된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하지만, 청중이 직접 요청한 정보는 아니야.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

2. 자료와 매체 활용 전략 파악

㉑에서는 <자료 2>를 사용해 지도에 나타난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제작자의 세계관을 나타